< 무섭지 시리즈 >

�� 머리말 - 무섭지 않아. 그냥, 몰랐을 뿐.

우린 무서워한다.

검은 그림자,

갑자기 꺼지는 불,

떨어지는 소리,

문득 찾아오는 고요.

무서워한다.

죽음도, 병도,

재난도, 실수도,

관계도, 시간도,

그리고... 나 자신도.

그런데 말이다.

진짜 무서운 건 뭘까?

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다.

"모르는 것."

모르면 무섭고,

알면 덜 무섭다.

이 책은 그 이야기다.

"무섭지 않은 이유"를

차근차근 알려주는 책.

과학은 어려울 수 있다.

하지만 무서울 필요는 없다.

이해될 수 있다면,

이해될 수 없는 것도 덜 무섭다.

그래서, 이 시리즈의 제목은 ‘무섭지’다.

이 말엔

조금의 안심과,

약간의 뻐김과,

은근한 뒤집기가 있다.

“무섭지?”

→ “무섭지 않아.”

→ “왜? 알고 보면 다 구조니까.”

지금부터 이 책은

당신 안의 두려움을 하나씩 꺼내어

차분히 바라보고,

부드럽게 설명해줄 것이다.

무섭지 않아.

정말이야.

우리가 함께 보게 된다면.